

Lawrence의 여인들*

- Sons and Lovers를 중심으로 -

박 정 길**

Images of Lawrence's women - with special reference to 'Sons and Lovers' -

Jeong - Gil Park

| | |
|----------|------------|
| Abstract | 목 차 |
| I. 서 론 | III. 결 론 |
| II 본 론 | References |

Abstract

My own concern in this essay is to describe some of my opinions about the roles of the three women, believed to be strongly affected in their ways to Paul's development. To this end, I tried to show in what way the three women played to 'hold on Paul's life' - the disastrous results of that hold. They are Mrs Morel, Miriam, and Clara; In contact with mother Paul gained the moral earnestness and the will characteristic of an earlier puritan generation. From Miriam he drew "the life warmth, the strength to produce", but he was unable to commit himself to the kind of relationship which Miriam wanted; she wants a spiritual communion. And at the end Paul goes to Clara; from her Paul gained something

* 이 논문은 한국해양대학교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기금의 후원으로 연구되었음.

Text는 Sons and Lovers(1981)판을 사용하였으며 본문에서의 인용시는 page로만 표시함.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영미소설 전공)

more intense physical relationship that he wanted to achieve. In short, the three women belong to different traditions of Victorian womanhood, each of which affects Paul's development, but fails to command him, and none of which dominates him. That is to say, Paul is strongly affected by the three women in S/L, but he refused to commit himself on them; actually none of them was the woman Paul really wanted to commit. These are the details of my argument in this story.

I. 서 론

D.H Lawrence(이하 Lawrence)가 이 책을 펴낸지도 올해로 81년이 되고, 내년이면 그의 사후 55년이 된다. 구성상으로 보아 제 1부와 제 2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소설은 형식상으로는 자서전적 연대기의 기술수법(=제 1부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으로 소설의 narration을 전개시키고 있다.

작가는 이소설에서 그가 태어나서 소년기와 청년기의 초기를 보낸 탄광촌 Eastwood(소설 속에서는 Bestwood로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로 Bestwood라는 지명도 Eastwood와 인접한 지역에 있다)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고있다.

영국의 Midland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장은 전설속의 의적 Robinhood가 커다란 자랑으로 남아 있으며 그가 기거했던 Sherwood Forest의 숲과함께 아직도 여전히 옛시골의 질서가 조금은 남아있는 이곳은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남부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고 종교적 배경 또한 다르며 정치적 전통이 과격한 고장¹⁾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작가가 태어나기 60여년 전에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원동력이랄 수 있는 Energy원인 탄광회사(B.W Co.)가 작가의 고향 Eastwood(소설속에서는 Bestwood이다)에 들어 오는데 소설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 탄광촌의 한 가정에서 자신이 나고 자란 성장사를 통해 한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정신사를 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Sons and Lovers(이하 S/L)에 등장하는 소년 Paul의 이야기는 곧 Lawrence 자신의 경험과 매우 근접해 있는 이야기들이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아들과 연인으로서의 Paul은 이 소설이 그려가고자 하는 희망적 허구와 그같은 기록을 가능케 한 소설외적 사실에 Lawrence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바로 이런점이 이 소설의 이해에 또 하나의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Paul은 성장과정에서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변의 여인들로 부터 많은 영향을 입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당초 작가가 생각했던 소설의 의도와 실제로 발생할 수있는 사실간의 필연성을 잃게 만들었다.그렇다면 그같은 Paul의 인간모습을 형성하는데

있어 구체화되고 있는 여인들의 작용과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글은 그것에 관한 것이다.

II. 본 론

소설의 一部는 가난한 부부의 만남과 사랑과 미움이 갈등과 반목의 과정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아들에게로 전이되어 모자의 관계가 좁혀질 수 밖에 없는 내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chapter인 'The birth of Paul'과 'The young life of Paul' 그리고 'Paul Launches into life'에서 보다 진전되고 복합적인 모자관계를 예 비해 두고 있다.

'The Bottoms' succeeded to 'Hell Row'라는 서두로 소설은 시작된다. 이 말은 곧 옛시골의 전원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리듬이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산업주의에 의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마을의 풍경을 간결하고도 선명하게 알려주는 말인 것이다. 광부의 가족들이 모여사는 Bottoms 단지는 도미노의 육전패 모양인 두줄로 선 6블록의 집이었다.²⁾

Lawrence의 아버지 Arthur Lawrence는 본시 광부였으며 어머니 Lydia Beadshall은 여교사 출신이었다. 아버지가 저급한 노동계급이었던 반면 어머니는 King's English³⁾를 쓰는 중산층 출신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가 쓰는 방언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있어 훌륭한 모범이었고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었다. Ada (Lawrence의 여동생)에 의하면 어머니 Beadshall은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에서 자랐으며 진실을 매우 소중히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옷차림도 매우 검소하여 검정색이나 흰색 또는 회색빛의 옷감외에는 몸에 걸치는 일이 없었으며 보석을 몸에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추여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아버지 Arthur Lawrence는 호남형으로 매우 건강한 체격에다가 춤의 명수(= A good dancer)로 알려져 있다. 성격도 좋아서 호감을 샀으며 재기넘치는 유머 감각에다가 윤기있는 목소리의 소유자로 한때는 교회의 합창단원이기도 했다. 그는 교육이 없었고 겨우 신문을 읽는 것이 독서의 전부였던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이러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Ada도 놀라고 있는 것이다.⁴⁾ 아마도 전혀 이질적인 이들의 성향이 서로에게 그 어떤 매혹으로 작용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관계의 부조화가 Lawrence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이 동시에 소설속의 Paul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설의 내용도 이런점에서 별로 다른 변화가 없다. Walter Morel (이하 Morel)의 가족도 역시 노동계급과 중산층 출신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소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사소한 사건들을 매우 극적으로 - (주의를 환기시키거

나, 때로는 과격한 표현 수법으로 혹은 보통으로는 결코 교통할 수 없는 열정적 감정이나 매우 강렬하고도 친숙한 상황에서 포착할 수 있는 감정으로 사건을) - 담담히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Morel의 가족이 평범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아무런 준비없이 머물다가 갑자기 소용돌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조각배에 탄 사람과도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예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⁵⁾ 그리고 더더욱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빈한한 사람들임을 잊지않고 있음으로써 White color를 능가해 보려는 인간적인 숨은 감정을 이들의 열망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열망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work - eat - drink라는 생존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어떤 야망을 지니는 인생의 목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야망은 불행하게도 남편과 아내사이에서 조화를 잃어버렸다.

Walter는 그의 아내처럼 매사에 안달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접촉하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순응해 가는것을 가장 커다란 만족으로 받아 들인다. 그는 아내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Pub. 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와 지내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술을 마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의 관심사가 곧 자기의 관심사인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Walter와 Mrs. Morel의 갈등, 그것은 따라서 노동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에서 발견되는 일상적인 삶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 (물론 경제적 궁핍이 이유가되고 있긴하지만) - 근본적으로는 상호간의 조화를 이룰수 없다고 믿는 불신의 벽이 결국 화해할 수 없는 극단의 인간적인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절대금주 - (teetotaller) - 의 맹세를 요구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도덕적인 면과 순전히 감각적인 성격의 소유자를 종교적인 인간이 되라고 주문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Lawrence가 요약하고 있는 Morel 부부의 대조적인 성격의 단면을 통하여 그들이 매혹적인 관계로 접어드는 과정을 보자: 그들은 한동안 행복했다. - (for three months she was perfectly happy, for six months she was very happy. S/L 19) - 그러나 두사람의 성장배경과 이질적 성격은 두사람을 갈라놓는 필연적 요인이 되었다. 큰아들 William이 태어날 무렵 남편에 대한 아내의 환멸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아내는 부부간의 갈등과 부조화의 곤경을 남편보다는 아이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생활을 바꾸어 놓는다. (See S/L 23)

부부간의 격렬한 다툼으로 인하여, 그들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하층계급 - (lower class miner) - 의 조약과 중산층 여인 - (middle class woman) - 의 세련이 말해주듯 감각적 아버지에 대한 동정보다는 청교도적 신심의 어머니에 대한 지지쪽으

로 소설의 *narration*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본다.

집세를 내려고 남겨둔 돈을 지갑에서 훔쳤다해서 추궁받는 남편에 대하여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사과할 줄 모르는 남편을 참 안됐다고 생각하는 아내와의 다툼속에서도 이들 부부가 유지하고 있는 최초의 매혹이 또 다른 한차례 고비를 맞는다. 그것은 둘째 아들 Paul의 탄생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무렵 Mrs. Morel은 목사님 - (a young congregational minister) - 과 여러시간을 함께 지내게 되는데 Lawrence는 여기서 Mrs. Morel의 관심사를 아이들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의 가닥을 새롭게 잡아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큰아들 William의 진로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큰아들 William이 아버지 Walter처럼 광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William, 그는 아버지의 활달성과 어머니의 지성을 공유한 아이였다. 나이 19세에 Nottingham으로 일자리를 얻어 Bestwood를 떠났던 그는 다시 London으로 진출하여 연봉 120파운드의 거금을 손에 쥐게된다. William의 안정된 직업과 경제적 부유함, 그것은 Mrs. Morel로 하여금 남편 Walter와의 차별화를 성공적인것으로 예단하는 징표로 삼고있다. William의 active한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과 건강한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William의 사생활이 한에 차지 않는다. William이 London이라는 낯선 도회로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애편지를 태우는 등의 신병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그가 London에서 절제의 생활을 해가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게된다. 이때쯤 (See Chapter 3) 어머니는 벌써 William의 추락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글 전체중에서 Paul의 탄생과 관련된 이부분의 *narration*은 매우 극적인데가 있다.

She suddenly held up the child in her hands.

'Look!' she said. 'Look, my pretty!'

She thrust the infant forward to the crimson, throbbing sun, almost with relief. She saw him lift his little fist. Then she put him to her bosom again, ashamed of her impulse to give him back again whence he came.

'If he lives,' she thought to herself, 'what will become of him - what will he be?'

Her heart was anxious.

'I will call him "Paul",' she said suddenly; she knew not why. S/L 51

여기서 Mrs Morel은 새로 태어난 아들과 자기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Paul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마치 아이가 허약하거나 불구이기라도 한듯한 생각을 하게되며, 아기의 허약하고 작은 몸을 잇고 있는 탯줄이 아직도 자신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더더욱 큰 사랑으로 키워주고 싶어한다.

큰아들 William도 어머니의 옹호자였다. 그러나 William이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못하자 *narration*이 갑자기 William을 포기하는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을 본다. Paul은 그래서

다음 순간 Mrs. Morel에게는 어떤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존재가 되고 삶의 보람이며 이정표 같은것이 된다. Paul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은 형은 London에 있으며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해 버리고 이제 경제력을 갖고있는 Paul만이 집에 남게 되었을때 그나마 가장이라도 된듯한 기분이되는 일련의 삼화적 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그리하여 Paul에 대한 어머니의 지배가 William때 보다는 한층 더 진전되고 심화되는 국면을 맞게된다.

아들(Paul)의 구직 문제에 비친 어머니의 적극성은 확대된 그녀의 의욕을 잘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Paul의 구직에 대한 입장은 어머니와는 사뭇 다르다. 그에게 있어서 구직은 곧 굴욕이며 산업의 노예 - (a prisoner of industrialism S/L 113) - 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Thomas Jordan and Son - Surgical Appliances - (이하 Jordan상회) - 에 취업했다. 그것은 바로 Paul에 대한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에 의한 것이며,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Paul이 사회진출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보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Paul의 취업은 Paul의 일인 동시에 바로 자신의 일이었다.

William이 끊어버리고 만 송금과 경제력의 상실로인해 아버지 마저 자기위치에서 물리적으로 퇴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Paul의 취업은 Mrs. Morel이 갖는 보다 현실적인 희망이며 구원이었다. 그러나 Paul의 사회진출, 그것은 몇가지 노출되지 않고있는 어떤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Paul은 Morel家라는 조그맣고 내밀한 울타리안에 갇혀, 생존적 차원의 생활에만 익숙해 왔다. Paul의 단혀진 이런 생활이 이제 소유의 경계를 넘어 도회로 바뀌어가고 그의 성장을 형성하는 추진력이 어머니라는 존재 하나에만 머물지않고 더 넓은 세상경험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Paul의 이같은 세상경험은 사소한 사건들에서 빚어졌던 애증의 좁은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매우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Paul 자신의 역할수행을 통해서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William의 쇠퇴 - (See chapter 6) - 에 이어서 더더욱 뚜렷해지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Paul은 자신이 이집의 가장 - (I am the man in the house now. S/L 112) - 이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예사로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Paul은 어머니를 위한 투사가 된다. 이 부분에서 이들 모자관계를 요약해서 부연할 필요가 있겠다 :

그것은 아들들을 위하고 그속에 살고자했던 어머니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들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머니의 표면적 충고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는 박복한 남편복과 큰아들 William이 준 죽음의 충격과 그리고 병약한 아들 Paul의 위중함과 같은 허망의 늪에서부터나와 마침내 자신의 모든 관심을 온통 Paul에게만 쏟아 놓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자신의 생활이 뿌리내려져야 할곳은 오직 Paul이라고 결심하게되며 이것은 자신과 Paul의 관계를 보다 강렬한 것으로 만드는 계기로삼는다. 그것은 그녀가 아들 Paul을 데리고 Willy farm의 Leivers家 를 방문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Mrs. Morel에 의한 이같은 나들이는 죽은 아들(William)과 자기 사이에 존재했던 끈끈한 애증의 관계를 청산하고 실패없는 모자관계 - (Mrs. Morel vs. Paul) - 의 진입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되고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Paul의 삶은 Mrs. Morel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길들여진 성장의 역사였다. 어머니의 가치관에 동조하고 어머니가 말하는 의식의 그늘에서 살아온 그런 세월이었다.

그러나 'Paul의 감성은 어머니가 지닌 인간적인 에너지와 원칙, 세련, 생각과 흥미 이 모든 것에 깊이 영향을 입은 태도상의 긴장'⁶⁾이 어머니에 대한 그의 헌신 못지않게 자신들을 지탱하는 비판적인 태도가 되어 Paul의 내심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Leivers家の의 부인을 찾았던 것은 부인의 신심에서 비롯한 것이었지만 Paul은 이웃의 어른을 만난다기 보다는 Miriam을 만나는 감흥이 더 컸다. Leivers 부인이 지배하는 Willy Farm은 끊임없는 잉태와 출생이 계속되는 곳으로 Mrs. Morel이 거처하는 Bottom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Willy Farm은 Paul의 제2의 집이나 다름 없으며 그는 이 아름다운 Willy Farm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을, 그것도 그가 항상 맘속에서 소중히 했던 인생의 풍요로움 - the richness of life - 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새 Leivers家の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⁷⁾

교육이 없던 Miriam은 Paul의 재능에 고무되었고 그의 가르침에 감사했다. 그녀는 Paul의 재능을 쉽게 알아 보았다. 그리고 얼마마지 않아 Miriam은 Paul을 사랑하게 된다. Miriam은 Paul을 자연스럽고도 거침없이 사랑할 수 있었지만 Paul은 그럴 수가 없었다. Miriam과는 달리 Paul은 그가 사랑할 수 있을때 사랑하는 것이다. Paul은 그가 선택한 여인에게서 느껴야만했을 사랑의 감정을 어머니 때문에 방해받고 있었던 것이다.

Lawrence는 자기 양심과의 대결에서 Miriam과 Paul의 문제를 비켜가야만 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Paul은 시종일관 확신에 찬 자기자신을 모색하기위하여 매우 절망적인 노력을 하고있는데 이런 Lawrence의 노력을두고 Murry는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를 잊지않았다.⁸⁾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성, 그것은 온전한 육체가 전제되지 않고서야 결코 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확신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Lawrence 자신이었다. 그리고 건강한 남녀에게서 비롯하는 정신과 성, 그것이 합쳐졌을때 매우 건강한 자아의 열정을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열정을 통해서 사람은 "Fullness"에 이른다는데것이 그의 주장인것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정작 건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삶의 기저가되는 이 활동 - (sexual fulfilment) - 을 성취할 수 없다고 느꼈을때 오는 좌절감때문에 그는 오히려 육체적 부활이 없고서야 정신과 성이 결코 융합될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리라는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하겠다. 게다가 죄의식없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violence라고 생각한 그였음을 알때 우리는 Paul이 Miriam과의 관계에서 빗고마는 인간적 비극성을 포착하는 것이다.

Lawrence는 아들 Paul이 사랑하는 여인인 Miriam을 어머니가 떼어놓으려드는 불평등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Murry는 이 두사람간의 관계를 질투심 많은 부인과 순진한 소녀간의 대결¹⁰⁾이라고 불렀다. 그는 Miriam이 여기서 희생되고 있음은 Lawrence가 자기를 진실되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육체적 교섭이라는 면에서 Paul의 Miriam에 대한 대응은 결국 Lawrence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¹¹⁾ 그는 심지어 Lawrence가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까지한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과 열정은 별개의 것이었다 했다. 그가 말하는 정열은 사랑하고는 별개의 것이었고 그가 말하는 열정또한 진실에 기초한 열정이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Lawrence의 운명에는 행복한 사랑이란 아예 없다고 주장한다.¹²⁾

Lawrence는 Paul을 앞세워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자기를 남에게 밝히기 보다는 상대에게 심어줄 굴욕감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어놓는 것이 더 좋았을런지도 모른다. Murry가 그를 일러 'He was divided man'¹³⁾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던것도 Lawrence가 Paul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Miriam과의 관계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환언하면 Lawrence에게 있어서 그의 정열은 사랑과 유리된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그의 사고 또한 반쪽일 수밖에 없었다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두사람 모두에게 고통이 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것은 Paul과 Miriam간에는 강렬한 정신적 교감과 서로간의 정신을 자극하는 강렬한 충동적 정서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관계의 부조화에 대한 원인을 말할 때 Lawrence는 그 책임이 Miriam에게 있다고 그려놓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Jessie Chambers (이하 Jessie)가 Lawrence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논거의 핵심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Jessie는 Lawrence가 fiction의 속성을 내세워 우리에게 있었던 진실을 비겁하게도 묻어 버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사람의 사랑이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Paul은 Miriam에게 너는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남의 사랑으로 채우려 하거나 하듯이 흡수하고 또 흡수하여 자신을 충족시키려한다(S/L 268)고 비난하면서 Miriam에게서 물러날 구실을 찾고있으며 Miriam은 자기와 Paul이 종말로 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별난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무렵 어머니는 아들을, 아들은 어머니를 끔찍히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몰랐다. 이때문에 아들은 불안했다. 이러한 Paul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Miriam은 Paul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기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어머니에게서 거리를

뒤야하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

사랑과 열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Paul은 스스로가 상처투성이의 영혼을 가진 자였다. Paul에 대한 Miriam의 애정은 헌신적이었고 열정이 담긴 것이었으나 그녀는 Paul에게서 성적욕구를 이끌어내는 action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반면에 Paul의 변명대로라면 설령 그가 성적교섭에 대한 열망이 정열적이었다해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Miriam에게 지향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해서 Miriam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자함에 Paul의 적극성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Paul은 Miriam에게 그녀가 신봉하는 거룩한 영적인 사랑을 자신의 정열에 담아 Miriam에게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Miriam의 생각은 Paul과는 달라서 우리 사이에는 Paul이 생각하는 그와같은 교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Miriam의 반발에 직면한 Paul은 행동가 - (thinker and doer 또는 the initiator in action)¹⁴⁾ - 로서의 남성적 입지를 떨 수 없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고 만다. 그러한 그들 관계를 우리는 'The test of Miriam'에서 더 깊게 관찰할 수 있다.

정신에 육체를 종속시키려는 Paul과 육체를 정신에 종속시키려는 Miriam 두사람의 열정과 욕구는 서로 뒤틀려 갔고 서로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Miriam에게 미치는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Paul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할 어떤 기준을 찾아야 했다. Paul은 Miriam이 그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Miriam은 그가 Paul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Miriam은 Paul의 영혼도 그녀를 갈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Miriam은 Paul의 이러한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Miriam에 대한 Paul의 요구는 곧 자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와 다름없었다. Miriam은 단조로운 그의 음성이 기운없이 뻗고있는 서투른 그의 말이 오히려 부끄럽다. 그리고 Paul이 자기에게서 느끼는 부족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 없이는 Paul이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것 - (She felt he could not do without her. S/L. 279) - 이 Miriam이 얻고있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Miriam의 확신은 미래를 기다린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토록 자신만만한 결론의 저류에는 높은것에 대한 욕망과 낮은것에 대한 욕망 - (desire for higher things, and desire for lower S/L. 280) - 가운데서 Paul은 결국 높은것에대한 욕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는 Miriam의 예단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어머니는 Paul의 생활에서 불안정한 낌새를 본다. 그리고는 아들의 생활이 Miriam의 차지가 되었다해도 뿌리만은 어머니에게 남겨주는 그런 Miriam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난 정말 못참아, 다른 여자라면 몰라도 Miriam은 싫다 - (I can't bear it. I could let another woman - but not her. She'd leave me no room, not a bit of room. See S/L261) - 라고 외치는 말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는 Miriam에 때문에 매

우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어머니옆에 어머니가 자기생명의 주축이며 정점 - (the pivot and pole of his life. S/L 273)- 이라고 믿는 Paul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Paul은 어머니의 영혼도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갈구하는 내심의 평정을 통한 심적 고통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Paul로서는 자신의 신념을 좇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일이 중요했다. (그 돌파구는 Clara Dawes(이하 Clara)에게서부터 다가오고 있었다.) Paul은 인생문제에 대하여 어머니와 긴 토론을 벌였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

'I don't want to belong to the well-to-do middle class. I like my common people best. I belong to the common people'... In myself, not in my class or my education or my manners. But in myself I am only from the Middle class one gets ideas, and from the common people - life itself, warmth. S/L 313.

어머니는 아들 Paul이 'Common people'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기를, 다른 gentlemen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Middle class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진 어머니에게 아들은 'Middle class'가 갖는 이상과 태도, 계급의식과 교육보다는 'Common people'이 갖는 삶 - life itself - 을 옹호하고 나선것이다. 지금까지 어머니는 아들이 중류계급에 합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왔으며 아들이 참한 규수와 마침내는 결혼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어머니의 희망이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온기" - 'from the Common people - the life itself, warmth.S/L 313 - 를 내세우는 아들에 의해서 무참히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Paul앞에는 Miriam과 여러가지로 상반되는 Clara라는 여인이 Lawrence의 구성적 책략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본다. Clara의 등장은 Paul이 Miriam과 갈등의 긴장국면을 지탱해 오면서 그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위해 시도해온 몇가지 의도적 행위의 결과이기도하다.

Paul은 Miriam에게 그녀의 소극적 태도 - (You're not positive, you're negative. S/L 268.) - 를 질타했다. Paul은 Miriam이 싫다해도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려 하지않는 테리어 - (a big bull-terrier. S/L 269) - 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Miriam은 Paul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리고 Paul은 Miriam 앞에서 점차 냉혹해져 갔다. 다음순간 Paul은 Miriam에게 우리는 헤어지는게 좋겠다. - (We'd better break it off. S/L 271) - 고 선언하고 나섰던 것이다.

Miriam은 이때 Paul의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이 Paul에 의해서 철저히 거부되고 있음을 알지못하고 있다. Miriam은 자신(Paul)대신에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권유를 받자 Paul의 서투른 어리석음에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창피해 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기에게서 느끼고 있는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Miriam은 Paul의 종교에 대한 불가지론적 태도를 탓하는 대신에 그를 각성으로 인도하는 신념의 마루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Paul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 기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Paul은 자신을 떠날 수 없다고 믿고있는 것이다.

Paul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이라고 믿는 소신이 있어 Miriam은 그런 Paul이 오히려 더 좋고 친근감이 가는 것이다. Miriam은 그러나 당장에 Paul의 트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고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Miriam은 자신을 시험에 걸어보는 하나의 선택으로 Clara를 끌어들이고 있다. Clara의 출현을 두고 두사람이 이에 반응하는 상황이 매우 대조적이다. 환언하면 Clara가 Paul에게 줄수 있는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Miriam이 알고 있었듯이 Clara 또한 Paul에 대한 Miriam의 태도를 분명히 알고있었던 것이다. Clara는 Paul앞에서 Miriam이 당신께 바라고 있는 바는 soul communion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있다. 즉 Miriam이 요구하는 것은 당시(Paul)의 실체라는 것이다. See. S/L 339

이말은 따라서 Paul에 대한 Miriam의 정서를 Clara가 아주 적절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말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Miriam은 여전히 Clara를 추락된 어둡고 무거우며 역센, 어쩐지 성마른 그런사람 정도로 보고있다. 그런가운데 Paul은 Miriam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소유자인 Clara와의 교제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Clara는 총명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신여성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녀의 행위가 여러면에서 가장되어 있으며, 위엄 또한 가려져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Paul은 Miriam에게서와는 달리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다. 게다가 Paul이 바라는 바가 성적교섭이라면 그것은 Miriam에게서 보다는 Clara쪽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되어있는것도 사실이다. Pau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와의 결혼으로 나를 바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 결혼은 소유의 의미이므로 자신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Paul이 갖는 주목할 만한 인간의 조건을 보기로 하자.

A good many of the nicest men he knew were like himself, bound in by their own virginity, which they could not break out of. They were so sensitive to their women that they would go without them for ever rather than do them a hurt, an injustice. Being the sons of mothers whose husbands had blundered rather brutally through their feminine sanctities, they were themselves too diffident and shy. They could easier deny themselves than incur any reproach from a woman; for a woman was like their mother, and they were full of the sense of their mother. They preferred themselves to suffer the misery of celibacy, rather than risk the other person. S/L 341

Paul은 Miriam과는 물론 결혼이라는 것도 자기에게는 도시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까지하는 깨뜨릴 수 없는 동정성에 얽매여 있는것이 아닌가?

Paul이 그러하듯 Clara의 저의도 또한 Paul에 대한 그녀의 욕구때문이지 소유욕때문에

은 결과는 아니었다. Paul과 헤어진다 하더라도 개념치 않는다는 생각이 Clara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것이다.

욕망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두 여인에 대한 Paul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Murry는 이런 말을 하고있다. 즉 Paul은 본질적으로 sex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천상의 거세된 남자 - a eunuch - 로 어머니와의 유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child - man이라는 것이다.

This man, we feel, has no business with sex at all. He is born to be a saint: then let him be one, and become a eunuch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For him, we prophesit, sex must be one long laceration, one long and tortured striving for the unattainable. This feverish effort to become a man turns fatally upon itself; it makes him more a child than before. He struggles frenziedly to escape being child - man to his mother, and he becomes only child - man again to other women, and the first great bond is not broken.¹⁶⁾

그러면 sex와도 관계가 없고 천상의 거세된 남성인 Paul은 과연 누구인가?
여성을 사랑한다는 가장 간단한 보편적 감정,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성의 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고있는 남성이 Paul이 아니었던가? Paul은 Clara의 압도적인 매력에 사로잡혀 그 따뜻함이 준 열정 때문에 Miriam으로부터 Paul의 마음이 점점 떨어져 나갔듯이 Paul의 마음은 어머니로부터도 차츰 떠나고 있음을 주목하자.

Paul이 어머니에게서 점점 독립해가고 또 비판적이 되어감에 따라 어머니는 Paul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어머니는 낙심했으며 비애를 느끼고 있음을 본다. 이때 어머니는 그녀가 Paul에게 있어서 방해물 - (she was in the way S/L 342) - 이 될것을 안것이다. 그리고 부인은 Paul에대한 간섭을 포기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

And she went to bed, leaving the door unlocked for him; but she lay listening until he came, often long after. It was a great bitterness to her that he had gone back to Miriam. She recognized, however, the uselessness of any futher interference. He went to Willy farm as a man now, not as a youth. She had no right over him. There was a coldness between him and her. He hardly told her anything. S/L 342

Miriam을 향한 Paul의 행동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이같은 비애와 Clara에게로 Paul의 관심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갖는 관심을 비교해보면 이 두여인에 대한 어머니의 상황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즉 어머니는 Miriam에게 반응했던 그녀의 감정 ((see S/L 237. 273. 342)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Paul과 Clara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Mrs. Morel의 Clara에 대한 평가를 보면 좀더 분명해 진다. 어머니는 Clara가 마음에 드느냐는 Paul의 예상치못한 물음을 받고는 그래 마음에 든다. 그러나 머지 않아 넌 그녀가 싫어질께다. 너도 알고 있잖아 - ('Yes, I liked her. But you'll tire of her,

my son; You know you will; S/L 401) - 라고 대꾸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그녀와 비교해 보아도 틀림없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Miriam이 그러했듯 어머니도 아들의 효심과 그의 도덕적 태도를 믿어온 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즈음 Paul은 자기를 지키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화가가 되고 말겠다는 것이 그의 각오이다.(See. S/L 367) 그의 나이가 24세가 되고있고 게다가 Paul은 지금 Clara가 주는 육체적 매력에 압도되어 있어 누구도 Paul이 빠져있는 이 늪에서 그를 건져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Paul은 모든것을 어머니에게 털어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육체적인 교섭의 문제만큼은 자기만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이제 Clara와 자기의 관계가 지금 어머니와 자신간에 놓여있는 비밀스런 감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Clara가 제기하는 다음의 의문은 Paul과 Clara의 관계를 극명하게 부각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이채롭다. 왜냐하면 이대목에서 우리는 Lawrence가 제시코자하는 성에대한 몇가지 생각을 매우 어렵게 힘들여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Do you think it's worth it- the- the sex part?

'The act of loving, itself?

'Yes; is it worth anything to you?

'But how can you separate it?' he said. 'It's the culmination of everything. 'All our intimacy culminates then.'

'Not for me,' she said.

He was silent. A flash of hate for her came up. After all, she was dissatisfied with him, even there, where he thought they fulfilled each other. But he believed her too implicitly.

'I feel,' she continued slowly, 'as if I hadn't got you, as if all you weren't there, and as if it weren't me you were taking...'

'Who, then?

'Something just for yourself. It has been fine, so that I daren't think of it. But is it me you want, or is it It?

'When I had Baxter, actually had him, then I did feel as if I had all of him,' she said.

'And it was better?' he asked.

'Yes, yes; it was more whole. I don't say you haven't given me more than he ever gave me.'

'Or could give you.'

'Yes, perhaps; but you've never given me yourself.' S/L 441-2

Clara와 Paul을 통한 이같은 Lawrence의 탐색은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 다소 신비적, 비현실적 경지에까지 이르는듯 하지만 그는 여기서 사랑의 행위와 성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성과 사랑은 유관한가를 애써 말하려 하고있으며 성적 열정이 과연 소유를 수반하는가? 그렇다면 일방이 일상의 자아를 떠나 oneness에 이르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서로는 왜 저와는 무관한 당신 자신인것만 같다는 것인가? 내가 너와함께 경험하는 oneness와 내가 경험하는 당신의 oneness 는 서로 다른것이어서 우리는 서로 이때문에 일 상적인 우리의 자아를 알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까지 이르고 있다.

Lawrence가 표현하고 있는 Paul과 Clara간의 고뇌어린 말(See S/L 441-2)에는 그녀가 Paul에게서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 -그들 둘만이 아는 그러나 알 수 없는 주립같은 것- 이 깔 려있다. 여기서 Clara는 Paul을 자기결에 잡아두려 하고 있다. 그런데 Paul을 자기에게 묶 어두려는 그녀의 노력이 Paul로 하여금 그녀에게서 차츰 멀어져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Clara는 Paul에게 -(Baxter가 제 것이었을 때, 정말로 제 것이었을 때 나는 그이를 전부 가진 것 같았다)-는 솔직한 심정을 담담히 털어놓고 있으며 Paul또한 Clara의 이같은 설명에 대 해 자신의 위상이 지금 그녀의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계량해 보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좌 절을 안겨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변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Paul은 나름대로 Clara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Baxter와의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완벽했다는 Clara의 평가에는 Paul 자신도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Paul은 Clara와 자신이 자연의 일부로써 우주와의 결합을 이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결 합이 주는 감정은 Trent강의 역류하는 홍수같이 세찬 것이었고 생명의식은 육신에서 의지 가 떠난, 거대한 본능속의 황홀을 체험했다. Clara는 이러한 Paul의 정열을 신뢰하고 있었 다. 그러나 Paul은 자신이 느끼고자하는 추상이 Clara에게서 결여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 고 그녀의 욕구충족만을 위한 기계적인 혼자만의 노력은 오히려 Paul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 환에 실패의 원인을 제공할 뿐이었다.

Clara가 요구하는 것은 Paul의 실체였는데 반하여 Paul이 Clara에게서 얻고자하는 것은 흠어진 자기정신의 안정과 평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Paul은 그의 생활이 어머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랐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Paul의 저항은 곧 진정한 자기를 얻는 것으로 믿고있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운명해 버리자 Clara를 향해 혼을 불러 신비를 불태울 것 같던 그의 정열도 한순간이었을 뿐, 자신의 생활을 지배했다해서 저항했던 어머니를 향한 Paul의 분노도 병석의 어머니가 내쉬던 그 무거운 고통의 숨소리와 함께 묻혀버린 것일까? 그는 인생을 같이 해 왔던 어머니와의 사별이 자신과 관련된 나머지의 모든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낭패한 기분에 빠져있다. Clara가 Paul의 면전에서 당신보 다는 그이(Baxter Dawes 이하 Dawes)가 몇천 갑절이나 날 사랑했어요라고 불평했을 때 Paul은 그럴리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정작 Dawes가 자신(Clara)를 존경했으며 바로 그것을 당신은 내게 하지 못하고 있다(See S/L 466)는데 와서는 Paul은 내심으로 매우 단호한 결론 을 내리고 있다 :

Clara는 Paul에게 있어서 어느새 짐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Paul과 Dawes간에 있어왔던

남자사이의 이해라는 명분으로 Paul이 Clara를 Dawes에게 되돌려주는 예상된 재결합을 시도할 때 그것으로 Clara는 Paul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남는다.

다음 A.B의 인용문은 이들 두사람이 확인하는 그들관계의 냉랭한 거리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A

He only wanted to be left alone now. He had his own trouble, which was almost too much to bear. Clara only tormented him and made him tired. He was not sorry when he left her. S/L 466

B

It seemed as if their three fates lay in his hands. She hated him for it. She seemed to understand better now about men, and what they could or would do ... On the whole, she would not be sorry when he was gone ... Clara realized that Morel was withdrawing from the circle, leaving her the option to stay with her husband. It angered her. He was a mean fellow, after all, to take what he wanted and then give her back. She did not remember that she herself had had what she wanted, and really, at the bottom of her heart, wished to be given back. S/L 494-5

Paul이 느끼는 자괴도 있었다. 그것은 그와 함께한 여인이 고뇌를 같이 할만한 여자가 되지 못한 것 만으로도 그로서는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Clara 또한 그랬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기억이 없었다고 했다. Paul이 가버려도 서운한 것이 없다는 Clara였다. 그래서 그녀는 진심으로 Dawes에게 자기가 되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타계했을때 Paul은 이제 영원한 혼자였다. 세여인도 모두 혼자였다. 공허와 좌절의 한 가운데 서서 Paul은 이미 자기에게서 사라져 가버린 Miriam앞에 자기를 다시 세워보려한다. Paul은 그녀와의 관계가 Human Love¹⁶⁾였기때문에 어머니로부터 Humanity의 배반으로 몰려야 했던 그녀를 생각했다. 그러나 Miriam도 그를 떠나고 있었다. 아니 실제로 떠나고 있는 것은 Paul이었지만 Lawrence는 그렇게 썼다.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지배욕이 사라져 버리자 한때나마 반짝하던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능력조차도 시들해져 버렸다. Paul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자신을 내보이려 했던 창조적 능력까지도 부분적으로 어머니의 지배력에 의존해 있었음일까? 이렇게 되고 보니 그에게서 예술마저도 떠나고 Clara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Non-human love¹⁷⁾의 압도적인 성애의 매혹도 잊혀져가고 드디어는 Paul 자신도 모두에게서 떠나 마침내 방황하는 개인화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서로 다른 전통을 대표하는 세여인의 영향력은 그들이 갖는 특유의 행동방식으로 Paul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그 어느 누구도 Paul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Paul에대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Lawrence의 주장¹⁸⁾이기도 하다. 바로 그 어머니인 Morel여사는 아들을 통해서 사회적 열망을 실현코자 했으며 그것은

교육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도회생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Nottingham 출신이었고 따라서 그녀는 Nottms.와 Nottm. people을 좋아했다. 그러나 Paul은 도시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마음의 고향 Willy Farm이 있을뿐이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바라는 열망이, 특히 어머니가 현실을 보는 시각이 Bourgeoisie의 환원에 있었다해서 Paul이 어머니를 무조건 반대했을때 바로 그런점 때문에 아들과 어머니의 정서에 심각한 마찰이 일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들은 자신에게 강요된 어머니의 old idea가 단순한 악의만은 아니며 지나간 날의 시련과 고독의 응어리를 상쇄해 주고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며 사회적으로 새롭게 거듭태어나기위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 이외에 달리 길이 없다는 어머니의 생각을 Paul 자신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Paul은 어머니의 old idea가 의미하는 책임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old idea가 갖는 원칙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겠다. 그러던 Paul이 사별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신하는 -또 하나의 male로 변신을 꾀하는- 과정에서 Miriam에 대하여는 그의 마음도 육체도 끝까지 저항하고 있지만 그러나 Clara에 의한 육체적 유혹에는 그토록 투쟁적이었던 Paul의 정신력도 그녀의 육체앞에서 쉽게 굴복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Paul이 끝내 Miriam을 거부한 것을 두고 Frank O'conner¹⁰⁾는 Miriam에게서만은 Paul이 스스로 남성이기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 Paul이 Miriam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난 받아야 하는가 라는 평가를 내리기엔 매우 애매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없지않다. 그가운데서도 우리는 Lawrence가 Paul의 편에서 표현해 내려고 하는 동정적 시각을 읽을 수 있게된다. 바로 이점이 Paul과 Miriam간에 노출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갈등의 실마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Paul은 Miriam과의 교제에서 통찰력을 얻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시야는 확대되고 사고는 심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Paul이 어머니로 부터 창작력과 온기를 얻었다면 Miriam은 Paul의 이같은 자질을 백열화 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점이 Paul과 Miriam간의 관계에서 Paul이 가장 고뇌하는 정신적인 안타까움의 영역이랄 수 있다.

Miriam이 비록 강직한 신심의 도덕성에 기초한 정신적 모범을 앞세웠다고는 하나, Paul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Paul이 주장해온 사랑을 높은 수준의 생활양식임을 또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feat of Miriam'의 편에서 Lawrence는 Paul로 하여금 Miriam을 향해 "mystic nun"이라는 Paul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Miriam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 -(a mortal wound. S/L 308)- 를 입히는 결정적인 말이 담긴 편지를 (See S/L 307-308) 보내고 이를 Miriam이 참아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어머니의 면전에서 Miriam과의 절교를 선언해 버리고 그녀(Miriam)의 거듭된 청혼에도 불구하고 끝

내 8년간의 사랑과 우정의 종말 -nullified- 선택하고 있다.(See S/L 360-3) 그때 Paul은 Miriam에게 나는 두사람의 어머니를 원치 않아 -(I don't want another mother S/L 361.)- 라고 힘주어 말함으로써 Miriam은 이제 Paul의 인생에 장애물임을 분명히 했던것이다. 나에게 두사람의 어머니 -another mother- 가 필요없다라는 Paul의 언급이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남성이고자하는 Paul의 의지이다. Paul의 이와같은 변신의 의지는 그가 이제 Miriam을 떠나서 Clara에게 접근해 가겠다는 의사표시였던 것이다.

Clara는 여성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Mrs. Morel과도 전혀 생소한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Lawrence는 Clara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여성과 연대하고 있다는 정도의 극히 일반적인 사실만 취급할 뿐,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그녀를 여성운동 -feminist movement-과 결부시키지 않고있다. 그녀는 Paul이 Miriam에게서 얻지못하고 있는 무의식적 욕구의 대체 인물로써 Lawrence에 의해서 합성된 일시적 구원의 여인일 뿐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Clara를 Paul의 관능적 쾌락의 대상물임을 소설속에 담는것이 목적이었지 그녀의 사회적 열망을 넓혀주고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었던 의도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Paul은 Miriam을 'Miriam-as-mother'²⁰⁾의 지위에 두기를 거부했다. 동시에 그는 'Miriam-as-lover'로서의 위치도 또한 배격했다.

이러한 Paul에게 Clara의 존재는 무엇인가? Paul의 입장에서 볼때 우선 그녀에게서는 Miriam에게서와 같은 정신적 부담이 없다 : Clara게서는 Miriam에게서 Paul이 느껴야만 했던 가족의 일원과 같은 짐도 없으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식해야 했던 이른바 정상적인 'filiar feeling'에서 Paul이 겪어야 했던 고통 같은것도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Paul앞에 다가선 Clara가 Miriam과는 대조적인 harlot의 기질을 지녔다는 점이다. Paul이 Clara에게 말하기를 Miriam이 자기와는 한사코 영적결합만을 원한다고 꾸밈했을때 Clara는 Paul에게 당신이야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보태고 있다.

'You haven't found out the first thing about her ... That she doesn't want any of your soul communion. That's your imagination. She wants you.' S/L 339

Clara의 이같은 평가는 정신주의 속에 묻혀있는 Miriam의 인간적인 욕구도 결국은 당신을 성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또렷히 지적해 줌으로써 나 또한 당신에 대하여 그같은 소유의식을 가진 여성임을 은연중에 들어내 보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Paul은 이러한 Clara앞에서 자신의 무력을 느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Miriam에게서 알지 못했던 여인의 매력을 Clara에게서 실감하는 것이다.

Paul은 Miriam(as a lover)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교환의 그들관계를 Clara(as a

harlot)에서는 성공하고도 Clara(as a lover)의 관계만은 끝내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Daniel A. Weiss는 Paul과 Clara의 이같은 관계의 상황을 the paradisaal situation²¹⁾- (there is no consciousness)- 이라 하였는데 Lawrence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속에 저장하고 있었던 생명력을 확인하면서 두사람은 평화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To know their own nothingness, to know the tremendous living flood which carried them always, gave them rest within themselves. if so great a magnificent power could overwhelm them, identify them altogether with itself, so that they knew they were only grains in the tremendous heave that lifted every grass-blade its little height, and every tree, and loving thing, then why fret about themselves? They could let themselves be carried by life, and they felt a sort of peace each in the other. There was a verification which they had had together. Nothing could nullify it, nothing could take it away; it was almost their belief in life. S/L 430-1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욕구의 강렬함에 압도되어 (정열의 광대함을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 욕구때문에 Paul의 고뇌하는 마음은 망각속에 빠지고 (이렇게되면 Paul이 생각하는 Clara는 어둠속에 맴도는 하나의 추상이 된다.) 그녀곁에 Paul이 와준 것만으로도 흡족해한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녀속에 머물고만 있다.-And her soul was still within her S/L 430- 이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Paul과 조화할 수 없는 그녀만의 영혼을 두고 한 말인 것이다.

Lawrence는 Paul이 지향하는 인간의 신념은 인간은 선악의 구별을 자기내부에서 감각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신(one's God)을 서서히 인식하는 강한 인내심에 바탕을 두고 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썼다.(See S/L 313) 그것은 자기의 신이 거처하는 곳, 생명의 원형질 -(the very protoplasm of life S/L 239)- 이 용트림하는 어둠의 세계이다. Paul은 Clara에게서 이 원형질의 세계를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Miriam과 대조되는 관능의 세계였다. 그리고 Clara는 Clara대로 Paul이 저장하고 있는 'Vitalism'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잠시 생명의 세례 -(Baptism of life, S/L 439)-를 통해서 무엇인가 위대한 것-something great-을 공유하는 경험을 엮었다. 그러나 Paul이 바라는 것은 현존하는 Clara가 아닌 Clara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것임에 반하여 Clara는 현존의 Paul에게만 집착하여 그를 소유하려하는 데서 그만 두사람간의 부조화를 낳고 말았다.

Clara는 Paul이 인식하는 impersonal한 내면의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 생명력의 근원 -the very protoplasm-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사람의 관계에서 굴욕감과 자의식의 고통이 따랐던것도 바로 그런 이유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Mark spilka는 'Counterfeit Loves'라는 글에서 Paul과 Clara간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했다.

Since Clara really needs her stable, personal, daytime lover, she agrees to the reunion. However their may be. She fails with Paul because of her own short comings, for (along with her possessiveness) She lacks the capacity, the breadth of being, to take on the full burden of

his trouble soul.²²⁾

Clara는 Paul을 요구할 줄만 알았지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Paul은 Clara가 찾고 있는 남성이 자기처럼 패배를 인정할줄 모르는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았던 것일까? Lawrence는 이렇게 함으로써 Paul과 Clara를 간단히 갈라놓았던 것이다.

Together they had received the baptism of life, each through the other: but now their missions were separate. Where he wanted to go. She could not come with him. S/L 493

이렇게 되자 자기의 영혼을 담보하고 있었던 생명의 중심축 -(pivot)- 인 어머니를 잃어버린 Paul은 갈 곳도 없고 -(nowhere to go)-, 할 일도 없으며 -(nothing to do)-, 할말도 없는-(nothing to say)- 존재의 무 -(nothing himself)- S/L 501 (also See C/L p.69 Vol.I)²³⁾라는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그는 지금 그에게 행복과 불행을 안겨줄 그어느것에도 적대감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는 지금 혼돈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What am I doing?"

And out of the semi-intoxicated trance came the answer:

"Destroying myself."

Then a dull, live feeling, gone in an instant, told him that it was wrong.

After a while, suddenly came the question:

"Why wrong?"

Again there was no answer, but a stroke of hot stubbornness inside his chest resisted his own annihilation. S/L 499-500

III. 결 론

Mrs. Morel은 패배를 모르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Miriam이 Paul의 청춘에 속하는 여인이라면 Clara는 성장한 Paul의 인생과 세속에 속하는 여인이었다.

In his mother there is the moral earnestness and the will characteristics of an earlier puritan generation...In Miriam the intense cult of feeling, that derives from the Roman era.

In Clara the mortal independence, self consciousness and confusion of the new woman.²⁴⁾

교양과 정신지향적 의식을 통하여 중류계급으로의 진입을 실현해 내고자 자기사상의 고취를 열렬히 고집하던 어머니에게 저항하면서 하층계급의 생명력을 말하던 그가 Miriam으로부터 온기-(life warmth)-를 알게되고, 이를 백열화-(a white light)-하면서 불같은 정열의 세계-(baptism of fire in passion)-를 통해 Clara가 Paul로 하여금 한걸음더 성숙에 가까이 다가 가도록 영향을 준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세여인은 모두가 단편적으로 자신들의 소유욕적

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생명력이 자신의 내부에 실재하는 존재로서 Paul이 상실감에 빠져 비재감과 혼돈속의, 미분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활동을 모색하기위해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서 우리는 마침내 모두로부터 자유이고자하는 Paul의 의식적 노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등뒤에는 항상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야 했다고 Lawrence는 친구 Earnest Calling (1913.1.17)에게 고백했다.

It is hopeless for me to try to do anything without I have a woman at the back of me.....I daren't sit in the world without a woman behind me.²⁶⁾

Paul이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었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그의 삶의 축이 되어 준 어머니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그런 어머니가 죽자, Paul의 정신과 육체는 것잡을 수 없이 분화되어 갔고 쉽게 황폐되어 갔다. 그는 하루 아침에 복적 부재의 인간이 되어 버렸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그만의 세계에서도 소망하던 욕망 충족은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기쁨에서부터 나와 슬픔으로 돌아가고 절망 앞에서 교환의 어두운 본능마저도 멈춰버린 것이다.

Paul이 정신적이었다면 그는 Miriam의 드높은 욕망의 세계를 택했어야 했고, 그가 육욕적이었다면 수성의 여인인 Clara에게로 갔어야 했다.

Lawrence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는 Paul에게 하여금 사회적으로 용인될 법한 덕행의 가치와 반사회적이라고 생각되는 비도덕률의 행동중 그 어느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가하지 않았다. 실패한 자신으로부터 자유이고자 하고 그러한 자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봄직도 한 자유조차도 막은채 다만 내실이 없는 방향의 자유를 Paul에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인들로부터 선택되지 못하고 삶의 열정으로부터도 밀려나 자기존재의 싸늘한 소멸앞에 아픔을 되씹는 서글픈 자아의 덩어리, 그것이 지금의 Paul이 처한 실존이다. 가끔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때로는 짜증스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던 Paul이 마침내 자기자신이 가고있는 길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에서 멀어져 있어, 결국 자신의 인생도 소멸해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소설은 비로소 Lawrence가 말했던 본래의 주제에 근접해 가고 있는듯이 보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Lawrence가 그 어느것의 선택도 미룬채 Paul로 하여금 도시를 향해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는 종결을 택한 것은, 자신의 생명주의에 충실하여 끝내 그들 여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한 Paul의 존재방식에 대한 본래의 모습을 시사해 주는 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때 여인들이 만들어 준 Paul의 적극적 이미지이자 그들 모두의 숙명적 이미지이며 소설 S/L 가 갖는 미완의 Epilogue라 하겠다.

References

- 1) D.H. Lawrence : Sons and Lovers. Edward Arnold. p.58 Gamini Salgado
- 2) S/L, p.8 The Bottoms consisted of six dots on the blank-six dominos, and twelve houses in block.
- 3) Nehls, A Composite Biography Vol.I, pp.7-10 L's Autobiographical sketch.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57.
*Before my brother Earnest died we used to listen for her sweet voice singing hymns. After his death I don't remember her singing again. Ibid, p.10
- 4) Ibid, 10. My mother, who had never visited a mining village, met him at a party in Nottingham
- 5) D.H Lawrence, R.Draper. The Macmillan Press. 1976. p.39
- 6) The Visual Imagination of D.H Lawrence. Keith Aldritt.
- 7) D.H Lawrence and 'Sons and Lovers' Sources and Criticism. New York Univ. press 1965. E.W Tedlock Jr., p.157
- 8) Ibid, Tedlock Jr., p.15
- 9) Fantasy of the Unconscious D.H Lawrence. Penguin Books. 1986, p.110
F/U:110-111
When the sex passion submits to the great purposive passion, then you have fullness. and no great purposive passion can endure long unless. It is established upon the fulfilment in the vast nojority of indiviisuals of the true sexual passion.
- 10) John Middleton Murry. p.159 in 'Sons and Lovers' ed. Tedlock Jr., 1965.
- 11) Ibid, Murry (See pp.158-9)
- 12) See Tedlock Jr., pp.159-160
Cf : The physical relationship with Miriam was impossible.Happiness in love was not in Lawrence's destiny.
- 13) Ibid, Tedlock Jr., p.159
- 14) F/U: D.H.Lawrence. Penguin Books. 1986. pp.97-98
- 15) D.H.Lawrence and Sons and Lovers: Sources and Criticism. edited by E.W Tedlock Jr. New York Univ. Press. 1965. p.162
- 16) D.H.Lawrence. Sons and Lovers. A case book series, Ed. by G. Salgado. pp.147-148
- 17) Ibid, by G. Salgado. p.147-148
- 18) From "Autobiographical Fragment" phoenix Vol, I.p.818. I am sure the character of nine-tenths of the men of generation was formed by the mother; the character of the daughters too.
- 19) Ibid, by G. Salgado. p.150
- 20) "The mother in the mind" by Daniel A. Weiss in Tedlock Jr., ed. D.H Lawrence and and 'Sons and Lovers' New York Univ. Press. 1965. p.126
- 21) Ibid, E.W Tedlock Jr., N.Y. Univ. Press. 1965, p.130
- 22) The Love Ethic of D.H Lawrence. Mark Spilka, Indiana Univ. Press 1971. p.74
- 23)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Harry T. Moore. 1962. Vol,1. Heinemann "To Rachel Ammandas Taylor, from Lynn Croft, Eastwood, Notts." 3 Dec. 1910. pp.69-70
- 24) The Visual Imagination of D.H Lawrence. Keith Aldritt. London. Edward Arnold. 1971. p.29
- 25) The Letters of D.H Lawrence. Aldous Huxley, London, Hienemann, 1934. p.93

